

[H 갤러리]

AUGUST COLLECTION

8. 1. – 8. 31.

PHILIP. HAN.

**Marc Chagall(1887 러시아 제국 – 1985, 프랑스)
8. 8. 월. 1979 년 작품.**



두 개 꽃다발을 든 연인과 화가. Les amoureux aux deux bouquets et le peintre. kornfeld.ch

kornfeld 코멘트

미묘한 청회색 이미지 공간의 아래쪽 가장자리에 있는 연인들은 마치 두 개의 호화로운 꽃다발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보다 화가는 이젤 위에 이중으로 떠 있다. 하나는 뒤를 돌아보며 추억을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재와 미래를 내다본다. 그림에서 에퀴에르 (말을 탄 여성 예술가)는 삶의 은유를 암시한다. Vitebsk는 왼쪽 상단의 여성과 마찬가지로 윤곽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른쪽 아래의 신비한 동물에서 영감을 받은 삶과 삶의 이야기를 나타냅니다(구글 번역).

미묘한 청회색 대신 청회색이 비에 씻겨 내려간 듯한 담채화 같은 이 작품이 더 좋았다. 청회색은 팔월의 밤 정서로는 좀 심란해 보였기 때문이다. kornfeld 코멘트와 같은 감상 포인트 역시 곧 비가 퍼부을 것 같은 느낌으로 읽기에는 어렵다. 꽤 오랫동안 샤갈 작품을 보고 있음에도 말이다.

다만 샤갈의 작품을 그날그날 써야 할 일기처럼 여기고 감상하면 1979년 어느 날 샤갈이 무엇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지레짐작이지만 그 얘기를 쓰면 내 일기가 된다. (캔버스 상단부터) 고향 비테프스크를 떠 올리며 샤갈은 추억에 잠긴다.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떠나던 날 저녁 어머니가 건넌 여비는 가볍고 주머니 속에서는 딸랑딸랑 소리가 날 정도였지만 샤갈에게 그 소리는 결코 가난이 아니었다.

운명 같은 벨라와의 만남과 결혼 그리고 파리에서의 생활과 제 1차 세계 대전, 딸 이다의 출생과 유태인으로서 2차 세계 대전을 겪어야 했던 이 말도 안 되는 역사 그 모든 기억은 생생하기도 희미하기도 한 것이 마치 흰 연기 같았다. 하지만 슬한 우여곡절 속에서도 화가가 되기 위해 붓을 놓지 않은 것만큼은 선명하고 아름다웠다.

미국에서 돌아와 니스에서 정착한 샤갈 앞에 두 개 꽃다발이 붉고 싱싱하다. 그의 일생을 이 두 꽃다발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샤갈은 어쩌면

벨라와 함께 했던 그 시절과 벨라가 죽고 난 다음 시절로 구분했을 것 같다. 그래야 사갈 아니겠는가.

사랑, 그 사랑이 없었다면 사갈은 우리가 아는 그 사갈이 아닐 것이다. 어찌나 애뜻하고 가끔은 짓궂은 것인지 사갈의 사랑은 비밀이 없다. 사랑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 사갈은 지극히 개인적인 면면을 작품 안에 녹인다. 이 지극히 개인적인 사갈의 심정은 숨은 그림 찾기 하듯 찾아보는 재미도 있다.

지금 이 작품 두 개 꽃다발을 든 연인과 화가에도 그 사랑의 달콤함이 있다. 저 마음 나는 안다. 사랑이 빗발치는 밤, 그 사람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내 눈은 떨고 있었지만 내 손은 그 사람 가슴을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도 한 번 얘기 꺼낸 적 없는 이 기억을 사갈이 술술 고백하게 한다. 그렇게 애타던 내 마음을 이렇게 고요히 헤아려 줄 줄이다. 그날 사갈의 밤은 어땠을까. 빗소리를 풍경 소리처럼 듣고 있었던 밤이었는데.

Marc Chagall(1887 러시아 제국 - 1985, 프랑스)
8. 8. 월. 1962 년 작품.



The Bay of Angels, 1962.

1947년 지중해 푸른 백사장을 샤갈은 걷고 있었다. 백사장 한쪽 끝에 발길이 닿으면 날이 저물겠다 싶었다. 한 가지를 결정하고 싶었다. 그 결정을 하고 차오른 달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비테프스크 - 상트페테르부르크 - 파리 - 베를린 - 뉴욕의 밤 하늘 달에게는 걸을 내주지 못했다. 가난했고, 불안했고, 들키지 말아야 할 때 달은 더 더 빛났고, 대서양을 건널 때 달은 파도에 출렁거렸다. 흐물흐물 한 달이었다. 샤갈 자신 같아서 싫어했다. 벨라가 죽었을 때는 더 싫었다. 샤갈은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무너져갔는데 달은 천천히 살이 올라 포동포동 해지는 모습 때문이다. 그렇게 60살을 살았다. 샤갈은 이제 온전한 달이 보고 싶었다. 제대로 꿈을 꾸고 싶었다. 천사들이 낮밤으로 유리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니스는 샤갈이 꿈을 이루기에 충분했고, 온화한 지중해는 사랑꾼 샤갈로, 색채의 마술사 샤갈로 여생을 갈 무리 짓기에 좋은 샤갈의 취향이었다.

1962년 프랑스 관광위원회는 니스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 지역을 광고하기 위한 포스터를 샤갈에게 요청했다. '천사들의 해변 The Bay of Angels, 1962.'이 탄생한 배경이다. 날아다니는 인물, 유대 전통 요소, 비테프스크의 기억은 이 작품에서도 빠지지 않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캔버스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여인은 인어라는 점과 머리 색이다. 니스 해변에 모인 여성들의 특별한 특징일까. 아니면 죽은 벨라인가 산 바바인가 헛갈린다. 드디어 벨라에게서 벗어났다는 시위인가도 싶었다. 그 여인이 꽃다발을 들고 있다. 마치 이 해변 개장식에 첫 관광객에게 선물로 주려는 제스처다. 관광포스터를 의식한 샤갈의 의도일까. 이럴 때는 사실보다 상상이 즐겁다. 빼놓을 수 없는 비테프스크의 추억은 유명한 물고기다. 생선 장수를 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다. 춥고 가난한 시절을 억척스럽게 산 당신을 따듯하고 평온한 니스로 모시고 싶은 효자 샤갈의 마음. 이제 남은 것은 정착을 결심하게 한 결정적 한 장면이다. 캔버스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청록의 지중해이다. 눈보라를 헤치며 살았던 자신의 삶을 스스로 환영하고 있다.

좋은 공부를 탐하다.

8. 4. 목.



한 창업 동아리에서 초청을 받았다. 고등학교 방과 후 활동 일환으로 결성한 모임이란다. 20여명 대부분은 1~2학년 생이었다. 오~ 새롭다. 장작불에 가마솥이 부글부글 끓는 소리와 열기를 단박에 느꼈다.

특강 직전 한 친구가 담당 선생님께 찾아왔다. 창업 동아리 멤버가 되고 싶다는 것이었다. 꽤 똑똑하고 상위권 성적을 내는 학생이 이렇게 뜻밖의 제안을 들고 온 점이 무척 기뻐는지 담당 선생 얼굴에 함박꽃이 피었다. 드디어 미래의 창업꾼을 만난다. 심장이 벌렁벌렁 인다. 이런 흥분은 난생처음이다.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 행복하다.

누가 이들을 고등학생이라고 할까. 도대체 이들에게 창업이 무엇이길래 이 청춘들의 심장이 마구 타오르는 것일까. 그리고 그들이 내게 쏟아내는 무수한 질문은 인생 2 모작을 앞둔 장년의 고민 못지않았다. 되레 내가 그 수준을 쫓아가기에 바빴다.

고등학생들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회사가 침체기에 접어들어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의 문제해결방법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창업을 했을 때, 전체적인 사업 성공률을 어떻게 되나요?
비즈니스를 할 때 설득할 수 있는 방법?	창업을 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이 궁금합니다.
창업할 때,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창업을 시작할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셨나요?
브랜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초기 자본금? 대학 진학 필요 유무? 글로벌 창업?
창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과정이 궁금합니다.	좋은 공부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창업을 시작할 때, 현실적으로 필요한 준비물과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치(국내 정세)에 기업 또는 스타트업이 미치는 영향력

<p>창업을 했다가 망하면 길이 없을까봐 걱정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p>	<p>창업을 진행할 때 마케팅 방법이 궁금합니다.</p>
<p>창업을 할 때,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p>	<p>창업을 해본 적 있는가? 창업을 해보셨다면, 실패해보신 적도 있는가?</p>
<p>어떻게 하면, (10년 후/5년 후)의 트렌드(미래)를 내다볼 수 있을까요?</p>	<p>실패하고 난 뒤, 당시 생각 및 기분...</p>

술한 질문 중 균계일학으로 빛난 것이 있다. '좋은 공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였다. 허를 찔린 듯 숨이 턱하고 막혔다. 수많은 질문을 모두 예상하진 못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받을 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가파르게 내려가는 그 느낌이 오금이 저릴 정도였다. 어쭙잡은 말 주변으로 '사람 人' 한 글자를 쓰고, 한동안 이 글자를 같이 바라보자 했고, 무엇을 느꼈는지 물었다. 물론 내 의견도 남겼다.

인간의 본성은 '이웃집 암소를 죽여주세요!'라는 러시아 속담 한 구절을 인용하며, 이 말이 공부의 시작이라고만 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내 공부의 시작이 되었다.

거리의 칼럼부터 하얼빈까지.

8. 17. 수.



안중근 사망전보, 1962.

'거리의 칼럼' 첫 글은 '밥에 대한 단상(2002.3.21.)'이다. 시위 군중과 대치하는 광장에서 전경과 시위 군중이 밥을 먹고 있다. 밥은 보편적이고 개별적이라는 그 문장까지 독파하는 데 5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활자에 배인 최루 가스를 피하려면 이 칼럼은 그렇게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2016년 10월, 이 칼럼을 처음 읽었을 때 그랬고, 2017년 3월, 2019년 7월도 똑같다. 이 칼럼 필사 할 때는 숨도 쉬지 않는 까닭이다. 지난 2년은 코로나 때문에 숨은 쉴 수 있었다. 마스크를 쓴 탓이다. 마스크는 썼지만 필사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최루 가스를 잊을 수 있었다.

'하얼빈'은 인간 안중근 얘기다. 안중근이라는 조선 청년에게 직진하다. 어린 시절 · 문중 · 아버지 · 어머니 · 동생 · 친구 · 아내 · 자식 얘기는 단번에 쇠 못을 박는 솜씨로 안중근 독백 속에 있을 뿐이다. 오로지 이토 히로부미 심장을 터트려야겠다는 안중근과 동양 평화의 결기를 논하는 류순 감옥의 안중근이 '하얼빈'이다.

빌렘 신부의 기도문을 마지막으로 책을 덮었다. 남산 안중근 의사 기념관으로 향했다. 2012년 칼의 노래를 읽고 현충사로 향했던 발걸음 느낌과 속도, 목적은 똑같았다. 칼 자리에 총이 있을 뿐이었다. FN M1900 총과 총알을 가장 오래 봤다. 총 손잡이를 내가 잡고 이토 히로부미를 겨냥하듯이 말이다. 겨냥하는 내 모습이 전시실 유리 표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하얼빈에 내가 있었다면 ..., 의리 없는 귀신이 됐을 것이다.

명동 방향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거리 of 칼럼 1편 '밥을 위한 단상'과 2편 '라파엘의 집'이 떠올랐다. 밥의 보편성과 개별성은 인간 안중근 같았다. '술 취한 지식인들은 이 '라파엘의 집' 골목을 비틀거리며 지나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동전 한 닢을 기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글귀는 김아려 여사 삶을 닮았다고 생각했다.

이 책 제목이 '칼의 노래'에 이은 '총의 노래'가 아닌 점을 천만다행으로도 여겼다. '하얼빈'이어야 해영지아 · 咳嬰之兒 막 웃기 시작한 갓난아기 보듯 안중근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장 필사 목적도 여기에 있다. 고단한 청춘의 소망이라던 김훈의 안중근을 내 감상으로 호흡하고 싶어서다.

Epilog



1950-53. 비테프스크에서의 사갈의 꿈. Le rêve de Chagall sur Vitebsk

H 갤러리 본 업이 이번 8 월에도 비껴간다. 여차저차 이모저모 소명할 수 있지만 변명에 불과한 것을 안다. 그림 보는 시간이 현저히 줄었고, 그림 본다 한들 영혼이 꺾죄죄했다. 이 영혼을 살리려고 만보걸기를 시작했고,

들쭉날쭉 한 날이 많은 7 월을 보냈다. 8 월은 달랐다. 매일매일 만보를 채웠고, 간혹 넘쳤다. 비가 오는 날은 걱정보다 어떻게 하면 만보걷기를 할까 궁리했다. 방법은 있었다. 더현대서울 6 개 층 한 층 한 층을 걸었다. 한 층에서 그 위층을 오를 때면 던전 공략에 성공한 사람이 된 듯이 굴었다. 굶은 날은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렇게 만보걷기는 과녁 정중앙을 맞힌 화살처럼 매일매일 꽃혔다. 제법 검게 그을린 팔다리를 보고 건강해진 느낌이 들었고, 사실 건강 해졌다. 그림 보는 영혼도 건강을 되찾았다. 말간 해 같았다.

'비테프스크에서의 샤갈의 꿈(1950-53)' 한 독일 미술 문화원은 이 작품을 초등학생에게 소개할 때 샤갈의 이 독백을 인용했다. '나는 내 손을 보았다. 나는 손이 너무 예민했다. [...] 나는 특별한 직업, 하늘과 별을 외면하지 않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직업을 찾아야 했습니다.' 삶의 의미 또는 직업을 얘기하려는 가 아니었다 손이었다. 아이들에게 자기 손으로 작품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다. 놀라운 반전이였다.



내 손을 봤다. 열 손가락을 움직이면 '외면할 수 없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손을 다시 봤다. 손가락을 하나씩 움직였다. 하나 하나 말간 해 같았다.

매월 [H갤러리]를 성원해 주시고 아껴 주신 작가님께 진심 감사드립니다. 9월은 추석이 곧입니다. 조상 모시기를 일생의 업으로 여긴 어느 큰 어른이 이번 명절은 가족 여행을 하자! 말에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어른이 그러하시다면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자식의 도리이니, 이번 한가위 때 오르는 밥 짓는 연기는 몽실몽실 훈훈할 것 같습니다.